

한국YWCA 창립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



YOU ARE NOT ALONE



일시 2017.11.30(목) 오후 7시
장소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출연가수 린, 잔나비, 카이
예매문의 02)774-9702~7

YWCA 한국YWCA연합회

콘서트 후원계좌 농협 301-0171-5034-01 (사)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회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7년 11월호
November
Vol.545

특집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산에 첫 '통일씨앗' 뿌리다

기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의 길

칼럼
농촌과 페미니즘이 가당키나 한가
청년 솔직토크 '차별받아 봤니?'

인터뷰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눔정신 배우고 실천하는 YWCA 바자회



YWCA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



1989년 YWCA 팔도강산 바자회



1967년 YWCA 대바자회



대구YWCA 1983년 불우이웃돕기 큰장날

나눔의 대명사인 '바자'(Bazaar)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됐다. 이슬람교 포교를 위해 각지에 개설된 백화시장 '와자(bāzār : 시장)'가 페르시아 상인들의 교역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반시장을 뜻하게 됐다.

지금은 기부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수익금을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모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 정신여학교에서 수예작품, 별식요리 등 학생들이 1년간 배운 결과를 일반에 보여준 것이 최초의 가정과 바자회로 기록돼 있다.

한국YWCA가 주관한 첫 바자는 1957년 5월 25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연 서울 YWCA 회관건축 모금을 위한 국제바자였다.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다울링 미국대사 부인이 회장으로 건축모금을 위해 나섰다. 1967년 서울YWCA는 대한YWCA연합회, 한국소비자보호본부, 한국청년회의소 후원으로 'YWCA 기금모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생활용품 대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탁아소 설립,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 지원, 회관마련, 청소년교육장 등 공동사업 기금으로 쓰였다.

회원YWCA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팔도강산 바자회도 등장했다. 1977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매년 봄가을이면 회원YWCA별로 팔도 명산물과 우수상품을 판매했다. 연합회는 명동 회관 앞과 강당에서 회원YWCA가 속한 지역 특산품을 모아 판매하는 팔도강산 바자회를 열어 인기를 끌었다.

YWCA 바자회는 기금마련뿐 아니라 국내산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수 국산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소비자교육을 하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로 도농상생에도 기여했다. 지금도 회원YWCA는 지역 특색에 맞는 바자회나 장터로 절약, 협동,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의 손으로 공동체를 일으키고 지역 여성들과 연대해 지역을 살린 '살림'의 역사, YWCA 바자의 이름이다.

2017. 11 한국YWCA



표지이야기

한국YWCA연합회는 95주년을 맞아 100주년을 향한 여정으로 '여성평화순례 한라산편' 첫 일정인 한라산편을 열었다. 평화순례자들이 백록담에서 조각보를 펼치고 평화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신문>

2017년 12월 주요일정

12월 14일

YWCA 성탄예배

12월 18~19일

김필레리더십캠프(중학교)

12월 21~22일

김필레리더십캠프(고등학교)

12월 27~28일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사전모임

제53권 제9호 통권 545호

2017년 11월 25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문윤희 · 손지수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 문권희
- 05 **말씀 묵상** 영적 분별 | 김경은

특집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산편'

- 06 **특집①** **화보** 한걸음 한걸음 평화를 이뤄내는 씨앗 되리라 | 편집실
- 08 **특집②** **현장** 한반도 평화 위한 통일의 씨앗을 심다 | 편집실
- 10 **특집③** **참가기** 백록담에 오른 감동은 통일의 감각 | 참가자
- 12 **기획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의 길 | 장재연
- 14 **기획②** 에너지전환과 자립,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 성인심

- 16 **95주년 특별기획** YWCA 첫 지역조직 광주, 95주년을 맞다 | 문윤희
- 18 **인터뷰**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 편집실
- 20 **현장** 농촌과 페미니즘이 가닿기나 한가 | 달리
- 22 **칼럼** 청년 솔직토크 '차별받아 봤니?' | 뽀니·로로·루피·설탕·겨자

- 24 **YWCA-YMCA 기도주간** 소리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라 | 편집실
- 27 **이달의 현장①**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신미희
수상소감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확장되는 시대' | 최영애
- 30 **이달의 현장②** 목포YWCA 70주년 기념식 | 손지수
- 32 **이달의 현장③** 중견실무활동가 해외연수 '오키나와에서 만난 평화' | 박성희
- 34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2017 전국 나눔장터 & 애들아 밥먹자 | 편집실
- 36 **원로에게 듣는다** 박은경 증경회장 | 편집실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82년생 김지영, 교회청년 김지영 | 이한빛
- 40 **연합회 소식**
- 43 **회원YWCA 소식**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권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모금사업준비위원장

노오란 은행있이 거리마다 소복소복 쌓이고,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며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한국YWCA 희망나눔콘서트가 열립니다. 2006년 4월 'YWCA의 밤' 이후 11년만의 후원콘서트입니다.

한국YWCA는 95년을 늘 그랬듯 전국 10만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고동락해왔습니다. 힘차게 달릴 때는 서로 즐겁게 응원하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YWCA 공동체 가족이 굳건히 결속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견고히 나아가야 할 때임을 공감합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You Are Not Alone'입니다. 외로움에 방치된 이웃들과 그동안 잊고 지나친 주변을 돌아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받지 못해 힘들어 하고, 혼자 울고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영혼이 지친 사람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혼자가 아닌 함께 평안히 숨쉬는 시간, 갈급한 영혼을 재충전하는 '희망나눔콘서트'에 YWCA 모든 가족 분들을 초대합니다.

희망나눔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기획부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YWCA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조연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를 주제로 잡아주었습

니다.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는 디자인을 선뜻 맡아주셨습니다. 출연자 섭외부터 장소, 영상 등 공연 전반을 원로 자원활동가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과정마다 심혈을 기울인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심으로 한국YWCA가 오늘도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책임 있고 뜻있는 운동체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희망 자체임을 느끼는 가슴 뿌듯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밀하게 도와준 분들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비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나눔석을 마련해 내가 구입한 티켓이 또 한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눔의 마음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참된 모금'이라는 목표에 한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상호행복의 가치가 생겨나듯 바로 "당신이 나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 모아진 이번 콘서트 모금은 한국YWCA 운동을 위해 쓰일 것이며, 앞으로도 모금이 활성화돼 전국 52개 회원YWCA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나눔콘서트를 통해 우리가 한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 번 결속하며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



김경은

목사·장신대 교수

고린도전서 12장 10~11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새번역 성경)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정 장애'란 말까지 있지요.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마다 다메섹의 바울처럼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받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은사이자 기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11절에서는 영적 분별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분별의 은사로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거룩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분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던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분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분별하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예수님의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기준입니다.

영적 분별을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듯이 분별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열망과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 개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분별은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분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을 통한 결정으로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믿음에 근거한 확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WCA 한라산에 첫 '통일씨앗' 뿌리다 100주년 향한 여정, 2박3일 순례의 기록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 95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2022년 100주년까지 펼칠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첫 일정으로 한라산 편을 진행했다. 10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한라산, 제주4.3평화공원, 탐나라공화국, 이기풍선교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95주년을 상징하는 95명의 평화순례자를 비롯해 일반 참가자 등 150명이 참가했다. 2박3일 순례의 발걸음을 사진으로 담았다.

편집실

①평화순례자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조각보를 펼치고 있다. ②한라산을 오르는 백록담 팀 평화순례자들 ③한라산 사려니숲길에서 만난 청년회원들 ④회장단과 청년회원이 웃고 있다. ⑤둘레길팀이 사려니숲길을 걷고 있다. ⑥한국YWCA연합회 회장단이 2018년 지리산편을 주관할 광주YWCA에 대형 조각보를 전달하고 있다. ⑦참가자들이 등정식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⑧참가자들이 제주소리패 '소리앗' 공연을 함께 즐기고 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사진제공=함원혁>

전쟁과 분단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YWCA 국내의 회원들이 평화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YWCA연합회는 10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3일간 한라산, 사려니숲길, 탐나라공화국, 제주4.3평화공원, 이기풍선교기념관에서 '2017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편을 진행했다.

95주년, 평화순례자 95명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창립 95주년인 올해 한라산을 시작으로 2022년 100주년까지 매년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을 차례로 오르는 YWCA 평화운동 프로젝트다. 올해는 95주년을 상징하는 95명의 평화순례자가 한라산을 올랐으며 해마다 한 명씩 늘려 100주년엔 100명의 평화순례자가 백두산을 오르게 된다. 이번 한라산편에는 전국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150명이 참여했으며, 중국·미국 국적의 해외 동포와 북한이탈주민도 동참했다.

이번 여성평화순례는 설립 초기 평화를 구하는 기도 운동부터 시작된 YWCA 평화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 YWCA는 1980년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드리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북한어린이 돕기, 2012년 평화걷기대회, 2013년 한국·중국·미국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왔다.

6년간 계속될 여성평화순례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에서 민족의 성지 백두산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모든 여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씨앗'을 뿌리겠다는 회원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에게 이기풍선교기념관에서 출발도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 최초의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제주에 복음을 전파한 이기풍 목사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호남지역 교회들과 항일투쟁을 벌이다 순교했다.

우리는 왜 걷는가

첫째 날 이명혜 연합회 회장은 "YWCA 100년을 향하는 여정 속에 통일을 위한 간절한 열망과 굳건한 의지로 순례를 시작하게 됐다. 평화를 염원하며 한라산을 오르는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평화의 커다란 움직임을 이뤄내는 씨앗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마지막 여정인 백두산까지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평화순례 참가자들이 조각보 스카프를 하나로 묶어 평화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신문>

등정식에서는 최연소 청년 참가자, 최연장 참가자, 북한이탈주민, 연변 중국동포가 순례참가 의미를 나눴다. 분단된 조국에서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북쪽 백두산을 가보기도 전에 한라산을 먼저 오르게 된 소감을 전하며 목이 메기도 했다. 한반도 남북 어디서든 조선말로 소통할 수 있다는 중국동포는 한반도에 평화의 흙씨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는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바람을 전했다. 광주YWCA 두레산악회를 30년간 이끌어온 임형철 산악 전문가의 안전산행 지도도 진행됐다.

둘째 날은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인 한라산 등반이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 백록담탐과 사려니숲길을 걷는 둘레길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저녁에 이기풍선교기념관으로 다시 모인 참가자들에게 '여성평화순례 배지'를 달아주었고, 순례 의미를 나누는 한라평화축제를 열었다. 제주YWCA 방과후아카데미 '노래하는 청소년'의 평화노래, 제주 여성의 삶을 그린 제주민요패 '소리밖'의 '우리 할망넌 영 살아수다' 공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대동놀이와 함께 조각보 스카프를 하나로 묶어 평화실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무명천 할머니'가 일깨워준 평화의 가치

평화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하는 강의도 진행됐다. '기

독여성운동으로서 평화운동과 여성평화순례 의미'를 강연한 사회학자 정수복 작가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가장 성스럽게 쓰는 것은 두 다리로 걷는 것"이라며 "걷는다는 것은 진짜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춘천 남이섬을 명소로 만든 그래픽디자이너 강우현 작가가 친환경 콘셉트로 만들고 있는 탐나라 공화국을 찾아 평화를 위한 실천을 들었다.

제주의 아름다움 너머 가슴 시린 역사로 남아 있는 '제주 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제주 4.3평화공원 탐방은 큰 울림을 주었다. 허영선 4.3평화연구소장은 '4.3과 여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숭한 시련을 이겨내며 아픈 역사를 평화인권의 가치로 만들어내고 있는 제주 여성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허 소장이 4.3사건 당시 총탄에 맞아 아래턱을 잃고 무명천으로 감싼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여성을 그린 시 '무명천 할머니'를 낭독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YWCA 여성평화순례 참가자들은 '2017 여성평화순례'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군사적 행동 반대 △남북한과 주변 4개국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북한과 미국은 상호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2022년 순례의 마지막 여정인 백두산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록담에 오른 감동은 통일의 감격 한라산 10시간 등반에 도전한 사람들

한라산 정상에 오른 백록담팀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신문>

올해 여성평화순례는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는 백록담팀과 사려니숲길을 걷는 돌레길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순례에 참가한 최연소, 회원 YWCA, 북한이탈주민, 연변 중국동포 네 명의 소감을 전한다.

북한이탈주민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반하는 날이 오길”

처음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라산을 오를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백두산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한라산 등반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시작한 오늘을 계기로 언젠가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등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전도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연변 중국동포 리해숙 “금강산편은 우리가 이어가겠다”

연변민들레교류협회는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삶이 보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

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변에서는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도 조선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갈등, 폭력보다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한마음일 겁니다.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 균락을 이루듯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삶에 평화와 생명이 가득하길 바라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홀씨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연변 조선족은 언제든 금강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오르게 될 2021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표로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금강산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회원 구광모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연평도 폭격, 핵개발 등의 사건을 접하면서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통일이 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평화순례를 준비하기 위한 평화포럼단에 참여하면서 처음엔 주제가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분들



백록담팀 대원들이 한라산을 걷고 있다.(앞에서 두번째)



동트기 전 등반에 나선 민혜원 광주YWCA 회장과 구광모 청년회원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과 이야기하고 북한의 현실을 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빼놓아진 시선도 바로잡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같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청년들이 예전의 저처럼 통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평화순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통일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민혜원 광주YWCA 회장 “내 나이가 어때서”

청정한 가을, 결실과 감사의 달 10월에 YWCA 여성평화순례단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분단의 역사를 끝낼 평화통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YWCA 회원들이 신비의 자연을 품은 제주에 모인 것이다. 애초 체력을 감안해 돌레길 코스에 참여하기로 계획했던 나는 웬일인지 들뜬 마음에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한라산 등반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유행가도 있지만 평소 체력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새벽 4시도 되지 않아 눈이 떠진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오늘의 최선은 백

록담에 오르는 것, 매순간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리라 믿고 도전하기로 했다.

상쾌한 바람이 손짓하는 가운데 별빛이 반짝이는 어둠을 헤치며 열정의 대원들과 함께 출발! 10시간 넘게 걸려 돌길, 데크, 오르막 계단 등을 거쳐 20km를 나아갔다. 안내판을 볼 때마다 막연하던 목표점은 나를 주춤하게 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리라는 기대로 용기를 냈다. 안전요원, 광주YWCA와 연합회 가족 모두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어 산에 올랐다. 가는 길에 자연과 대화도 하고 시도 읊었다. 햇살에 빛나는 영롱한 단풍, 높고 푸른 하늘에 그림 같은 한 조각 구름을 벗 삼아 주목군락지의 멋진 풍경도 즐겼다. 드디어 백록담에 이르렀을 때 감격이란! ‘다리 좀 아프면 어때? 입안이 터지는 게 뭐 대수인가?’ 생각이 절로 들며 감탄하고 또 감격하며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

2018년 10월 광주YWCA도 지리산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 벌써부터 벅찬 기대를 품는다. 96명의 평화순례단과 일반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100주년을 향한 도전을 생각하며 체력도 더 길러야지, 마음가짐도 더 단단해져야지 다짐하게 된다. 2022년 100주년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를 열다’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감격이 있기까지 응원과 환호를 아낌없이 보내준 평화순례자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단체를 위한 운동이 아닌 탈핵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의대 교수

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민참여단의 열성 덕분에 시민 결정권 확대와 속의 민주주의 효용성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탈핵(‘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과 질 모두 크게 진전됐다. 참여자 모두의 노고는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원전 주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 정부 고위 관리나 공론화위원장이 연일 인터뷰를 하며 ‘위대한 국민’, ‘현재’ 운운하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정권과 공론화 위원들은 행복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통곡하는 결과가 그렇게 즐겁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을 공론화해야만 했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문제인 정권의 공약이었다. 건설 중인 원전의 중단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이유는 경주 지진 이후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문제인 정권의 더 큰 공약이었던 탈핵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원전 축소’가 아니라 ‘원전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어도 신규원전 추가건설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니, 굳이 국민들에게 물을 사항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공사를 계속해야 하면, 임기 중에 더 많은 숫자의 노후원전을 조기 폐쇄해서 실질적으로 탈핵

정책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탈핵정책 역시 공약이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핵정책을 공론화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사회적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단단하게 만들면 정권교체에 따른 후퇴나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을 정부나 일부 원전 종사자들이 독단적으로 정했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규원전 중단을 합당한 조치로 만드는 효과까지 있다.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강행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무리한 주장이다. 주요 국가과제는 정권 독단으로, 부수적 과제는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하니 공약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란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다.

속의는 제대로 된 공론화였나

이번 공론화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사재개 찬반 둘 중 하나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시민참여단이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야 했다.

위원회는 공사재개와 원전축소라는 권고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마치 갈등조정을 위한 권고안이 도출된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참여단 속의는 진지했는지 모르나, 의견 제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기계적으로 만든 설문제 개별적으로 응답하는 방식만 허용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을 뿐이었다. 시민참여단 응답 비율을 갖고 공론화위원회가 해석하고 결론을 만든 것이어서 시민들의 토론과 속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이 응답한 설문 문항 중에서 실제로 권고안 작성에 활용된 것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고 다른 결과는 보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설문 문항은 협의나 합의 없이 공론화 위원들이 비공개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됐다고 할 수가 없다.

시민참여단 구성도 공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이 박빙이라고 했음에도 건설재개 37%, 중단 28%, 유보 36%로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구성했다. 이런 사실을 공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럴듯한 이유로 비밀에 부쳤다. 탈핵운동 진영은 출발부터 큰 차이로 진 절대 불리 상태에서, 득점 방법도 모르는 상태로 게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풀이다.

이번 공론화에 적극 참여한 탈핵운동 진영이 이제 와서 공론화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 부인하거나 비판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의제에 공론화를 활용하려면 엄격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과 같은 왜곡된 방식의 공론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탈핵운동의 자성과 과제


탈핵운동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등

시에 목격했다. 시민들은 다수가 탈핵 정책을 지지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40% 이상의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에너지 공급 불안 역시 염려하고, 선언적 당위나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나 확신을 원했음에도 확신을 주지 못했다.

에너지 소비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증대 등을 현실화하는 것은 탈핵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어쨌든 문제인 정부는 탈핵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정부의 5년 집권 기간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높이고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탈핵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탈핵운동은 지금까지의 원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만 그치지 말고, 에너지 영역의 운동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이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무소불위로 훼손하는 전체주의적인 에너지정책이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원자력 안전과 감시의 완전한 독립 등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탈핵운동은 도약을 위한 재출발과 하락의 길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탈핵운동이 하기 나름이다. 운동을 위한 운동, 단체나 운동가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탈핵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 



일상의 근본부터 바꾸는 에너지전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건설은 재개하되 향후 원전은 축소한다”는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원전 없는 세상을 남기려 노력한 YWCA에게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시민 대표참여단 53.2%가 ‘원전축소’ 의견을 낸 것은 핵발전소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탈원전정책의 중요성을 확보한 것에 주목하며 ‘진짜 탈핵은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금부터 YWCA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론화 이후 시민단체와 탈핵진영은 에너지전환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핵발전 전 기소비에 익숙한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과정이다. 지속가능을 목표로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뿐 아니라 산업구조, 일자리, 시민 인식, 가격과 세제 등을 모두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까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한다. YWCA는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전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민관거버

넌스를 구축할 내부 역량은 준비되어 있는가.

탈핵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한국YWCA는 2018~2019 탈핵생명운동 방향을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로 정하고, 52개 회원YWCA에서 지역 형편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YWCA는 이미 지난해 시민단체, 공기업,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부산환경공단 수명사업소 발전소 부지에 ‘햇빛모아발전소’를 건립했다. 부산YWCA는 운영을 맡아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전기 판매대금 전액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그린에너지 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제2, 제3의 시민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길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탈핵운동에 힘써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냉동식품 먹지 않기, 절약형 멀티탭 사용하기, 소형태양광 발전기 사용하기 등 에너지 다이어트를 실천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작은 운동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교회와도 연대하여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교인 대상 탈핵교육, 교회 건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십자가 LED교체 운동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지방선거 탈핵 의제화와 지역운동


우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 시민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음을 실감했다. 보수언론과 원자력업계, 학계가 대대적으로 펼쳐온 원자력 홍보전에 맞서 시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 권리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시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험성을 시뮬레이션하며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탈핵과 생명에너지센터’(가칭)를 만들어 시민과 아이들에게 알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장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YWCA는 원전 위험성을 알리는데 힘썼던 운동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을 촉구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YWCA가 기초부터 함께 공부하고 YWCA 정책을 연구하며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YWCA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내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탈원전운동도 이어가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부산과 울산은 16개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지역이 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운동을 촉발한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는 여

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과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원전축소를 위해 노후화된 원전 고리 2·3·4호기 조기폐쇄 운동을 펼쳐 원전 밀집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강하게 견인하고 검증하며 지속가능한 탈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지역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국 52개 지역조직을 가진 YWCA는 지방선거 탈핵 의제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의제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에너지전환을 공약하게 하고 실행을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방사능안전급식과 에너지전환 교육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힘을 모으고 연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뤄나가야 한다. YWCA는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명이라 여기며 탈핵 탈원전을 향해 더 깊이 다가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30:19)”라는 성경구절을 나누고 싶다. 

‘여성, 기독교, 민주화’ 운동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

글·사진
문윤희 홍보출판팀 간사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항쟁 중심으로 계엄군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될 정도로 훼손된 광주YWCA 대의동회관은 '소비자는 인권 운동이다'는 포어를 마지막으로 1983년 철거됐다.

광주YWCA는 11월 3일(금) 창립 95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고백하고, 100년으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었다.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여성, 민주화, 기독교 운동으로 힘쓴 광주YWCA는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100년을 향한 비전을 다짐했다.

이웃과 지역의 아픔을 나누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고통 받던 1922년 여류 네 명의 조선 기독교여성 김필례, 양응도, 김함라, 임자혜가 모여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어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11월 5일 광주YWCA를 창립했다. 연합회가 만들어진 뒤 첫 번째 지역조직이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한 광주YWCA는 지역 여성운동과 발걸음을 같이했다.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거부로 탄압받던 광주YWCA는 1938년 강제해산을 당하고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재건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부모 잃은 소녀들은 YWCA 간판을 보자 광산동회관으로 찾아들었다. 전쟁으로 회관이 훼손돼 소녀들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광주YWCA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받아들이고자 1952년 성빈여사를 설립했다. 아동들이 자라나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3년제 야간중학인 호남여숙도 개설했다. 광주계명여사를 세워 윤락여성을 보호하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왔고 빈민여성에게 직업기술전문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광주YWCA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근거지였다. 목요일마다 구속자석방 기도회를 열고 회관을 개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광주 최초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 청년들이 민주시민 회보를 제작하도록 도왔으며 전국에 광주항쟁 소식을 전했다. 이곳에서는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민주인사들의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전달했다. 5.18 시민항쟁의 중심이었던 광주YWCA 대의동회관은 계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끊임없는 위협으로 회관이 닫히고 열리는 반복 속에 광주YWCA는 더욱 견고해졌다.

선배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념한다

올해는 대의동회관에서 계엄군 진압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광주YWCA 신협 직원인 박용준 열사의 사망보상금 1억2천만원을 중자돈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23번째로 전달됐다. 창립 9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도

민혜원 광주YWCA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축하공연을 하는 이선화 성빈여사 학생




열었다. 광주YWCA 합창단은 4월 27일(목) 정기연주회로, 95명의 기도단은 9월 5일(화) 특별 월례아침기도회를 진행했다. 95주년 기념연극 ‘티 없는 아름다움, Beautiful!! 소심당 조아라’를 11월 2일(목) 무대에 올려 여성운동 선구자이자 민주화의 대모인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일화를 두 번에 걸쳐 무료로 공연했다. 조아라 선생의 출생부터 소천까지 삶을 그린 만화책도 7월 7일(목) 출간돼 지역 초·중·고교와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됐다.

광주YWCA는 11월 3일(금) 95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광주YWCA 대강당에서 열었다. 기념예배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연합회 이명혜 회장과 유성희 사무총장, 대구YWCA 유영은 회장과 박선 사무총장, 광주YMCA 이계양 이사장과 문기전 사무총장, 아람인권도서관 안성례 관장 등 2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95주년 기념식 지문트리에 여러 색상의 지장을 찍으며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 대강당 뒤편에 전시된 광주YWCA 연대별 활동사진을 보며 지난 역사를 돌아봤다.

김선옥 부회장의 예배문 낭독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광주YWCA 합창단 특별찬양과 장관철 광주무진교회 목사의 ‘신비한 포도주를 맛보고 싶은가’ 설교로 이어졌다. 모든 조명이 꺼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김갑숙, 이윤지, 조정희, 최양님 이사의 기도에 맞춰 광주YWCA가 걸어온 길을 회개하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민혜원 광주YWCA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배들의 헌신, 희생과 봉사로 이뤄진 광주YWCA 역사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성찰하며 정의롭고 건강한 운동체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전국 52개 회원YWCA의 리더 역할을 담당한 광주YWCA는 재건 이후 민족의 아픔을 함께 헤오며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YWCA 시민운동의 산 증인이 되어왔다”며 격려했다.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강명진 전자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선보였고, 광주YWCA 어린이집 아동 23명은 한 달간 연습한 장구공연을 성황리에 펼쳤다. 이선화 성빈여사 학생은 가곡 ‘Sognai(쏘나이)’ 독창으로 95주년을 축하하며 마쳤다. 



광주YWCA 95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YWCA '그 이름'을 되찾으라!

희망나눔콘서트에 함께하는 이유



한국YWCA연합회가 95주년을 기념해 희망나눔콘서트를 연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공감과 위로를 나누자는 뜻의 'YANA'(You Are Not Alone). 2000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으로 인연을 맺어 다방면으로 YWCA를 돕고 있는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의 아이디어다. 콘서트 진행도 자처했다. 스타PD에서 '서울시민 PD'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YWCA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 대표는 MBC PD, OBS 대표, JTBC 대표,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교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지냈다.

대담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국제협력위원장, 세계YWCA 부회장
글·사진 신미희 손지수 홍보출판팀

'Y'가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신교사, 방송PD, 방송사 대표, 교수를 거쳐 문화예술 단체까지 맡았는데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는 농업하고 비슷해요. 농사짓는다는 것은 좋은 밭에다 좋은 때 좋은 씨를 뿌려 가뭄과 홍수를 이겨내고 추수한 쌀을 잘 탈곡해 사람들이 밥으로 접하게 되죠. 문화의 과정과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화의 씨앗을 잘 뿌리고 그 문화가 잘 성장하고 육성돼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문화가 영어로 culture인데 농사는 agriculture예요. '문화' 씨앗이 잘 발아돼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문화담당자, 문화매개자들의 일인 거죠.

YWCA와 어떻게 만났는지요?

YWCA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줬어요. '좋은 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연이 있었어요. 방송사 PD를 쫓 해왔고, TV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청자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YWCA를 돕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건강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YWCA 안목으로 뽑는 일에 참여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불러주고, 제 안목을 존중해주니 제가 YWCA에게 감사해야 하지요.(웃음)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이어지면 연이 생기는 거 같아요. YWCA에서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물어보셨을 때 그 제안이 좋았고, 무엇보다 그때마다 시간이 됐어요.(웃음) 이번에도 YWCA가 콘서트를 하니깐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콘서트 연출은 제 전공이잖아요. 사회를 보는 것도 제가 제안했어요. 콘서트를 왜 기획했는지, 방향성은 무엇인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건강하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죠.

YANA를 '모녀음악회'로 이어갔으면

'YANA'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즉흥적으로 떠올랐어요. 외롭다고 느끼며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철환 대표가 한미미 위원장, 손지수 청년인턴에게 희망나눔콘서트 'YANA'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주고 싶었어요. "당신 곁에는 두 가지 F가 있어요. Family와 Friend!"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You Are Not Alone을 써봤어요. YANA라는 약자가 나오더라고요. "야! 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나를 봐달라고 말이죠. 앞으로 사람들이 YANA를 많이 쓰길 바라요.

평소 지론인 '더다이즘'과 같은 맥락이네요.

국어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더'는 '더더더'처럼 사람들을 조르고 숨막히게 하는 게 있는데, '다'는 '다다다'로 모두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다다이즘'이라는 문예사조도 있고요. 다다이즘을 살짝 비틀어 '더다이즘'(더 좋은 날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자)으로 '더'보다 '다'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콘서트에 오는 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관객들은 앉아서 즐기면 되죠. 그냥 즐거우면 돼요. YANA 콘서트를 '모녀음악회'로 이어가면 좋겠어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딸은 YWCA를 알게 되고, 그 매력에 빠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YWCA 정신이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도 되고요.

서울문화재단이 준비 중인 '문화독립선언'은 어떤 것인지요?

2019년이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돼요. 우리도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문화독립선언'을 생각했죠. 문화야말로 종속되면 안 되니까요. 2019년 3월 서울문화재단 청사를 대학로로 옮기면서 대대적으로 문화독립 이슈를 알리고자 해요.

2022년 YWCA도 100주년을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YWCA에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YWCA에 발랄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은 코치, 감독이 되어 청년을 키우는데 주력하면 돼요. 좋은 TV프로그램처럼 좋은 어른이 있어요. 좋은 어른은 청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과 대화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청년을 지원해야 하고요.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이잖아요? 그 이름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을 여성들이 위협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는 자기방어캠프에 참여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생활 페미니즘이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 산내면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 등을 펼치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단체 '문화기획 달(대표 이유진)도 그중 하나다. 2014년 설립된 문화기획 달은 독립잡지 <지글스>(지리산에서 글쓰는 여자들) 발행과 지리산 여성전용 창작생활공간 '살롱드마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을 통해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기획 달은 10월 25일(수)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농촌 페미니즘 활동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모순적인 여성의 삶을 이해하다

농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흔히 가부장 문화와 보수적 분위기를 떠올린다. 당연히 페미니즘과 멀게 느껴진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지 7년이 넘었고, 지리산에 온 지 5년째지만 아직도 맞닥뜨리는 일상이 낯설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그만큼 도시와 농촌의 문화 간극이 크다. '문화기획 달'이 농촌에서 흔히 않은 여성주의 단체로 자리하기까지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도 '농촌에서 페미니즘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회의 섞인 물음이 떠오르기도 했다. 필자가 농촌 페미니즘 활동을 통해 발견한 희망은 부조화 속에서 만나는 여성들 사이에 연대감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욕구를 밝혀내는 과정은 지역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여성들이 자

신의 삶을 상상하는 범위를 넓혀준다. <지글스> 활동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필진들은 입 모아 "내 삶은 <지글스>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꾸려가는 경험, 특히 자기 이야기를 책이라는 공개적인 장에 내는 활동이 여성들에게 자신과 더 밀착되고 다른 삶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아내나 엄마 역할을 벗고, 온전히 나를 만나고 드러내며 다른 여성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한 필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내 삶에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지글스>는 페미니즘 잡지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하기 힘들다. 쿼섹션, 급진적 페미니즘과 시부모에 효도하고 싶다는 글이 나란히 실린다. 서로 다른 여성의 욕구가 만나고 경험되고 있는 그대로가 펼쳐진다. 어쩌면 모순적인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게 페미니즘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을 여성을 위한 아트스쿨

이제 통치지 말자

<지글스>는 '문화기획 달'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여성단체 정체성을 갖는 것에 결정적이었다. 필진들이 한 가지 주제로 자유롭게 떠들고 글로 내는 '뺏다 수다방' 코너에 '그XX'를 주제로 만났다. '그XX'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당한 성차별, 성폭력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가장 놀란 건 '이런 말을 해도 되는구나' 깨달음이었다. 농촌에 온 지 10년 넘은 분들도 같은 여성들과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모인 사람들은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전처럼 살 수 없다며 페미니즘 캠페인을 하자고 결의했다.

그래서 지난해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이제 통치지 말자'를 열었다. 여성 대상으로 정의의식과 성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사례를 수집해 페미니즘 웹진에 글을 냈다. 단막극을 올리고 만화로 그린 자료집도 마을에 배포했다.

일상에서 익숙해진 성차별과 성폭력을 드러내니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통쾌하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한 거 아니냐, 보기 불편하다는 말도 들렸다. 며칠 후 한 주민에게 전화가 왔다. 한 마을에 살며 이런 책을 만들고 뿌릴 수 있느냐는 항의였다. 속이 상해 개인 SNS에 푸념처럼 글을 썼다. "아, 나 이러다 동네 쌍년 되겠네" 그랬더니 <지글스> 필진들, 동네 여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같이 쌍년합시다", "나도 쌍년할래", "와 쌍년 만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시골동네 '쌍년파티', 누가 더 쌍년일까

우리 동네 쌍년 다 모이라고 '쌍년파티'를 열었다. 가장 쌍년스러운 옷을 입고 누가 더 쌍년인지 겨뤄보는 '천하제일쌍년대회'로 비난과 압박을 '놀이'로 만들었다. 페미니즘 강의와 활동결과를 공유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어 주민들을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여성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얻었다. 귀농한 지 오래된 언니는 "우리도 묵인하고 때론 동조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선배의 진솔한 자기반성에 몽클하면서도 씩씩함을 지을 수 없었다. 관심을 갖고 대화해보자는 남성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문화예술 활동에 페미니즘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공동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상처주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드러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농촌 마을에 서서히 변화의 균열이 시작했다. 성역할 구분이 심했던 행사나 공간에 남성 참여가 이뤄졌고, 목소리 내는 여성 주민들이 생겼다. 현재는 성교육에 참여했던 남성들이 따로 모임을 하며 함께 공부한다.

우리가 꿈꾸는 페미니즘은 농촌을 아무 문제없는 공간이나 완벽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발붙인 곳에서 자신으로 살아가도 온전할 수 있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결국 서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청년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코너 '올로'를 선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YWCA 20대 청년회원 5명(남성 1명 포함)이 참여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란 11월 13일(월) 오후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솔직토크, 허심탄회한 그들의 속내를 듣기 위해 별명으로 심는다. '올로'(YOLO)는 'YWCA에서 노는 애들'을 재미있게 이미지화한 제목이다.

왜 남자가 항상 먼저야?

루피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항상 앞 번호였어. 차별인 지도 몰랐지.

설탕 교회주보에도 항상 장로님들이 먼저 나오잖아.

쁘니 어제 교회 갔는데 화가 났어. 남자는 무대설치, 여자는 안내 같은 서비스를 맡겨. 역할 차별이 너무해.

설탕 사회는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쁘니 내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도 성차별이 심해서야.

겨자 밖에서는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변화가 있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여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요해.

설탕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야.

쁘니 "너는 순종 빼고 다 잘하네?" 이런 말도 들었어.

루피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야?

겨자 여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고,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 해.

설탕 친절하고 착하게 살아라, 어릴 때부터 늘 듣던 얘기가야.

열 번 찍으면 죽어

로로 요즘 좋은 이별하라 그러잖아. 여자들은 헤어질 때도 무서워.

쁘니 남자친구랑 싸울 때 "애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 힘으로 밀리니깐.

겨자 남자들이 여자한테 번호 따잖아. 자기 번호는 주지 않고, 거절하기 무서워서 다른 번호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하더라.

쁘니 남자들아.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고ㅠ

설탕 열 번 찍으면 죽어요~

루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많은 것 같네.

쁘니 걸그룹이 야한 옷차림으로 군대 위문공연 가잖아. 내 친구들도 아이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고 하더라고.

설탕 교회조차 위문공연 갈 때 예쁜 여자 위주로 뽑잖아.

루피 하긴 나도 군대 있을 때 교회 여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러가고 그랬어.

설탕 왜 여자들이 위문을 해야 할까? 교회에서 군대로 공연하러 갈 사람 뽑을 때 팔려가는 느낌이야.(울상)

로로 전쟁 때 동원된 위안부와 다른 게 뭐야? 형제는 도둑 안 된다면서 예쁜 자매들이 자원해달라는데 예쁜 기준이 뭐야?

루피 남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남자가 오면 좀 그렇잖아...

겨자 뭐가 특수해? 훌륭한 남자 선배가 가서 토크쇼하면 안돼?

공중화장실의 여성연대

설탕 성욕이 당연하다고 사회가 만드는 것 같아.

쁘니 힘과 권력이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루피 YWCA 강의에서 강사님이 "상사가 여자 직원을 좋아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쁘니 상사는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하기 어려우니까 무섭지.

로로 누가 날 좋아해서 그걸 받아주면 여우, 안 받아주면 철벽 친다고 욕하잖아.

설탕 여자는 잘해줘도 쌍년. 못해줘도 쌍년이 돼.

루피 어릴 때부터 여자들은 변태도 많이 마주치잖아.

로로 중학교 때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창문이 열리더라. 길을 묻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운전자가 날 보며 자위를 하는 거야. 진짜 충격이었어.

겨자 나도 초등학교 때 등교하는데 어떤 남자가 조강하며 오더니 날 안고 엉덩이를 만지더라. 놀라서 주저앉았더니 아무렇지 않게 가더라고.

설탕 진짜 미친 사람 많다.

쁘니 그런 경험 한번 씩 있지 않아? 여고 기숙사 샤워실에 있으면 창밖에서 레이저 쏘고 그랬어.

루피 남자들은 이런 경험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깐 너무 충격이다.

겨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상한 애들이 멸절한 척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

겨자 공중화장실도 무서워. 급해죽겠는데 최대한 이용 안 하려고 해.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설탕 난 공중화장실에서 연대감을 느껴. 전에 사용한 여자들이 몰카 있을까봐 구멍을 휴지로 다 막아놓잖아. (웃음)

다같이 맞아맞아

겨자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공포는 여성이 많이.

루피 난 한 번도 이런 무서움을 느낀 적이 없어.

세상에 드러내야 해

겨자 뭐가 문젠까?

설탕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문화? 유난스러운 애로 만들잖아.

쁘니 여자들이 많이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쨌든 다수의 이야기는 세상에 드러나잖아.

로로 나도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차별받는지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지.

설탕 남자도 함께 말하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아.

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당장 바뀌진 않지만 혼자자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져.

설탕 YWCA가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쁘니 떠들면서 동시에 바뀌 나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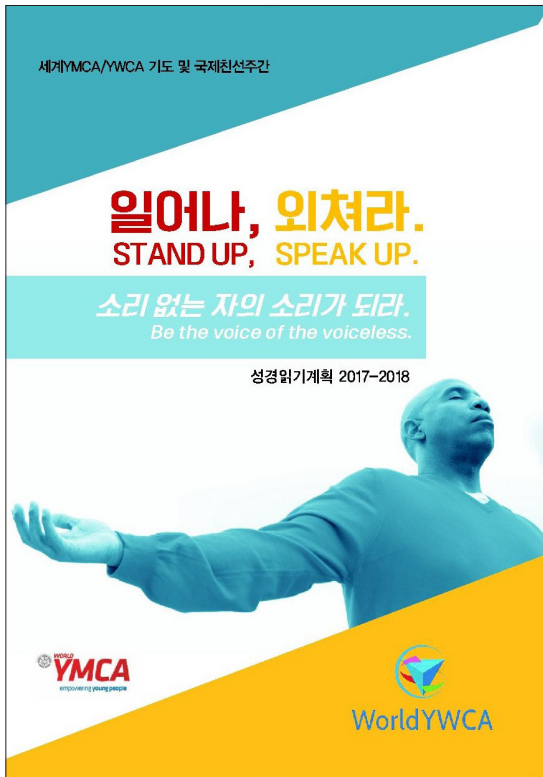
루피 나는 YWCA 활동을 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많이 바뀌었어.

겨자 맞아. YWCA에 오는 남자들은 좀 다르지.

설탕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도 힘들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 "생계형 페미니스트"라고 비난받잖아.

겨자 페미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꺼리는 여자들도 있어.

로로 여자와 남자 모두 함께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YWCA가 해야 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니까.



일어나 외쳐라

소리 없는 자의 소리가 되라

편집실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해 이날을 시작으로 1주일을 평화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매년 공동으로 연합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다. 올해는 '일어나 외쳐라, 소리 없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주제로 사회적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서 인권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목소리,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소년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낼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도내용이다.

첫째 날 일어나 외쳐라

마가복음 10:46~52

사회운동에서 쓰는 용어 중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의견이 무시되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힘과 맞서 싸우는 것도 우리 소명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곤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권을 부인하는 정책들에 맞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날 장벽을 허물어라

에베소서 5:11~14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은 분리와 감금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 특히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은 2002년 장벽 건설을 시작했고, 현재는 그 길이가 600km를 넘습니다. 분리장벽으로 인해 여성들은 검문소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에 의한 성희롱을 당하고 있으며, 병·의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배타주의자의 사상을 묵과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권 실현을 막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다른 곳들의 장벽도 무너뜨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날 광야에서의 외침

고린도후서 10:5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을 위해 자신의 정치권력을 사유화했고 임기 동안 직간접으로 많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인내심을 잃었고 2016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와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결의를 다졌고, 촛불시위는 더 강한 저항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시민들의 막강한 힘에 의해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의해 탄핵된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시민들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단결하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와 정의의 방향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적 힘에 의한 비폭력 혁명이었습니다.

넷째 날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사도행전 18:9~10

매일 매초마다 한 명의 여성은 성폭행, 물리적 폭력, 신체 훼손, 또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여성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맞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개인, 지지자로서 우리 모두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역사회에서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성폭력이 특히 문화적 전통이나 종교의 형태로 발생할 때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 너가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명기 10:17~19

시민의 절반이 기회, 특권, 공평함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들과 매일 마주칩니다. 이들은 장기실업자, 외

국인 노동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감옥을 살고 나온 범죄자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문화 혹은 소수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힘을 합칠 때 더 큰 적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주여 내가 들었사오니 이제 말하겠나이다

잠언 31, 9

할례는 지구촌 곳곳에서 소녀가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린 여성과 소녀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이족이나 삼부루족 등에서는 할례를 문화적 의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점을 바꾸기 어려운 보수적인 노년층이나 할례시술자와의 협업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큰 반발을 삽니다. 간혹 노년기 여성들도 할례에 대해 여전히 그릇된 믿음을 갖고 캠페인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YWCA는 할례에 희생되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 보호, 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저항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YWCA와 YMCA에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곳에 보내신 주님, 이 묵상과 예배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목소리를 사용하게 하소서

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한 세계YWCA-YMCA 국제 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가 '일어나, 외쳐라 소리없는 자의 소리가 되다'라는 주제로 11월 13일(월) 한국YWCA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연합예배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의 이사·위원, 실무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청년(다문화), 탈북민, 노숙자의 사진 앞에 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와 나의 실천을 적는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의 소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김명실 대구 영남신학대 교수가 마가복음 10장을 인용한 '길 닦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현대사회가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운 절벽에 홀로 서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여 놓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도, 외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명하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가 어딥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주며, 눈이 없는 자들의 눈이 되어 주고,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격려를, 다리가 없는 자에게 걸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YWCA와 YMCA는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이날 발족하는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강조하고, 3.1운동 정신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를 마지막으로 연합예배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 회장단과 사무총장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YWCA-YMCA 참석자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대상 여성인권운동가 최영애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공정무역전문가 이미영 대표

신미희
홍보출판팀 부장

올해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은 여성인권운동가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이, 젊은지도자상은 공정무역전문가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11월 2일(목)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여성인권운동 개척한 최영애 이사장

대상을 수상한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인권전문가'이자 '여성운동가'이다.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전담 상담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장,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장 등으로 관련 법·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국가 차원의 첫 인권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착하

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교도소 방문조사, 탈북여성 인권 실태조사, 장애인시설 성폭력 사건인 '도가니' 사건 등에서 여성인권 전문가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 도왔다.

2010년부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을 통해 탈북 여성 인권향상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로서 여성인권뿐 아니라 인권 자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최 이사장은 "사회적 통념과 편견으로 비난받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 격려와 지지로 받는 생존자로 불리게 된 것은 큰 보람"이라며 "반(反) 성폭력운동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지치지 말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는 상이라고 생각해 감사하게 받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미영 대표 여성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기업가다. 200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 패션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세우고, 환경과 젠더 관점에서 제3세계 빈곤여성들의 경제자립 지원을 넘어 국제교류를 통한 윤리연대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개발센터 연구원을 거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의 이 대표는 여성과 환경,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무역을 선택했다. 적은 자본에 높은



대상을 받은 최영애 이사장

이달의 현장 ①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소감



젊은지도자상을 받은 이미영 대표

부가가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면 여성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수공예 사업을 주목해 133명의 시민주주가 참여한 공정무역 의류회사 페어트레이드코리아를 설립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브랜드 전략을 도입해 공

정무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루'를 출시했으며 2015년 3억 2천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대표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 네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국제컨퍼런스를 운영하며 한국공정무역 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와 YWCA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무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루'를 출시했으며 2015년 3억 2천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대표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 네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국제컨퍼런스를 운영하며 한국공정무역 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브랜드 전략을 도입해 공

정무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루'를 출시했으며 2015년 3억 2천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대표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 네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국제컨퍼런스를 운영하며 한국공정무역 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상복이 없었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응원이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환경파괴와 가난의 악순환이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는 걸 깨닫고 공정무역에 뛰어든 지 10년이 되었는데 우리 삶이 세계에 존재

하는 분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금 소비에 대한 윤리적 성찰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호, 김영란, 박영숙 등 34명 여성지도자 배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더 YWCA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여성지위 향상에 헌신해온 여성들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전문적 활동으로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온 여성지도자에게 대상,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게 하는 만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세계화 시대 평화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적극적 활동을 해온 여성이나 단체에 특별상을 수여해왔다. 그동안 34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했으며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영란 전 대법관, 이희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故 박영숙 前 여성재단 이사장, 윤정옥 前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故 정광모 前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대상을 받았으며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저자, 김문정 뮤지컬 음악감독,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젊은지도자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이 받았다.

대상 수상소감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확장되는 시대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들었던 감정은 "참 좋다, 참 기쁘다, 특별히 YWCA가 주는 상을 받게 되어 더 기쁘다"였습니다. 제게도 영광이지만 그동안 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의 길목에서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료와 선배,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의 수고를 사회적 수고로 평가해주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YWCA는 192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남녀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인권과 평화를 향한 시대 사명을 사회운동으로 실천하는 대들보 같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축첩 폐지, 청계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표명, 여성 조기정년제 폐지, 가족법 개정, 환경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 등 여성운동을 확장해온 YWCA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불리기까지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성폭력의 실상과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고 만났던 내담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오랫동안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여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 비난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통곡과 비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세월 속에 이들의 문제를 같이 싸우고 뒹굴었던 여성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비난받던 성폭력 피해자에서 사회적 격려와 지지를 받는 생존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국가 인권전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하면서 마주했던 한국 사회는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는 불평등한 사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나이트메이크 커튼이 쌓여온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 각종 편견과 폭력적 인권침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에서 만난 탈북여성들은 '탈북자'와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적 질곡에 놓여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성희롱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직면하고 '어린이 성폭력'이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주시는 상의 의미가 반(反) 성폭력운동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 말고 더 힘내어 일 잘하라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사회, 정의롭고 평등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확장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빛' 지역사회와 함께 밝히다

글·사진 손지수 홍보출판팀 인턴



'크리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

1947년 해방 후 어렵고 혼란했던 시기 여성, 청소년, 아동을 돌보고 키워내고자 설립된 목포YWCA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목포YWCA는 11월 7일(화) 목포신안 비치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예배·기념식을 열고,

생명·평화·정의를 이루어나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선포했다.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원영희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 회원YWCA와 연변민들레교류협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부부지사, 성혜리 목포시의회 부의장 등 지역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교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이숙 목포YWCA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념예배는 김애자 직전회장의 기도와 홍연아 대학Y협의회장의 성경봉독, 목포YWCA 이사중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광군용 목포양동제일교회 목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제로 목포YWCA 발자취와 앞으로 역할에 대해 설교했다.

곽 목사는 "목포YWCA는 정치, 문명적으로 소외되었던 목포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힘썼다.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는 '크리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고 평가했다. 곽 목사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세상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청년을 훈련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목포YWCA 70년의 여정



- 1947~1962 문맹퇴치운동, 야간중학교 창설, 구호사업
- 1963~1979 기출소년보호소 개설, 소비자보호운동, 가족법 개정 운동
- 1980~1989 여성직업개발, 무료직업안내소, 대학Y 발족
- 1990~1999 아나바다 운동, 북한분유보내기, 여성직업능력 훈련프로그램
- 2000~2016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운동, 다문화한글교실, EM운동, 탈핵운동
- 2017~ 연변조선족 여성단체 교류, 돌봄노동여성 소통 공간 운영, 청소년장학금



연변 동포여성 2천만원 지원

목포YWCA는 70주년 기념사업이자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연변 중국동포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2천만원의 지원금을 리해숙 연변민들레교류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특별 지원금은 연변 지역 동포여성의 지도력 향상, 방과 후 교실 아동들의 간식·학습지원, 환경운동, 합창단 운영, 봉사활동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래 인재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창립 60주년부터 시작한 장학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3명, 대학원생 1명 등 모두 41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출발한 목포YWCA 장학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6명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또한 돌봄노동 여성들의 쉽고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열고, 돌봄종사자의 전용공간으로 운영한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목포YWCA 회관 상담실을 리모델링해 11월 17일(금) 개소한 '플랫폼'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살림돌보미,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 돌봄종사자 공간으로 사용된다.

목포YWCA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과 교회 등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50년 봉사사상을 받은 조미경 증경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목포YWCA에 헌신한 회원들에게 봉사상과 근속상을 수여했다.

돌봄노동 여성 소통공간 오픈

안팎의 격려와 축하도 이어졌다. 이명혜 한국YWCA 연합회 회장은 "100년을 향한 비전을 새롭게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국 52개 회원YWCA의 마음을 모아 목포YWCA 70주년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YWCA 회원 한 분 한 분께서 '세상을 살리는 여성 리더'로서 비전과 자부심을 갖고 탈핵으로 평화로운 지역사회, 화합하는 민족,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소중한 밑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YWCA 총무 출신의 성혜리 부의장은 "YWCA 활동이 있었기에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부의장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혜경 목포YWCA 회장은 기념사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변지역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돌봄노동 저소득층 여성들의 쉽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노동권의 불안정속에서 힘들어 하는 여성들과 함께 모두가 평등한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YWCA는 이날 채택한 창립 7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그동안 헌신과 노력이 충분히 못했음을 고백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명·평화·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100년을 향한 희망을 빛을 비추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박성희
전주YWCA 부장

군사기지 문화와 여성폭력 상황을 중심으로 여성평화운동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YWCA 본부 중견실무활동가 해외연수가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4박5일간 진행되었다. 9개 회원YWCA(대구, 대전, 서귀포, 서울,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청주) 활동가 9명과 연합회 활동가 2명 등 11명이 참가했다.

전쟁 그리고 평화. 막연한 단어로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일까. 17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내게 혜성처럼 찾아온 오키나와 연수는 기분을 들뜨게 했다. 그러나 사전과제를 통해 오키나와를 알게 되면서 ‘동양의 하와이’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전쟁의 상처가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한 번도 전쟁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는 이번 연수에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다. 1945년 4월 미군은 오키나와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일본군은 강력한 방어전을 펼쳤다. 3개월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미군은 1만 2천명이 전사하고, 3만 6천명이 부상했다. 일본군은 10만여 명이 전사했다.

빨간기와집 '배봉기 할머니'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연수단은 오키나와 나하공항

에 도착하자마자 남부 전적지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히메유리탑과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이다. 육군 병원에 간호요원으로 종군하던 오키나와 제일고등여학교와 사범학교 여자부 학생, 교사 240명은 미군에 포위당하자 일본군의 강요로 야전병원으로 이용되던 동굴에서 집단자결했다. 그 곳에 위령비 히메유리탑이 세워졌다. 탑 왼편에는 오키나와전투 자료와 증언을 모아둔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이 있다. 어린 여학생들의 영정과 유품만으로도 당시 비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키나와전투에서 희생된 수십만 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격전지였던 곳에 조성한 평화기념공원으로 이동했다. 오키나와전투에 강제로 징병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인을 추모하기 위한 ‘한국인 위령비’도 있다. 조선에서 강제 연행된 수천 명의 청년과 소녀들은 군속(군무원)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희생됐다. 한국에서 가져온 돌로 둥근 무덤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다. 조선인들을 위해 묵념했다. 위령비는 한국을 바라

보고 있었다.

우리는 ‘평화의 초석’으로 향했다. 일본의 만주침략부터 오키나와전투에서 죽은 20만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은 검은색 위령비가 줄지어 세워진 곳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한반도 출신자는 단 462명뿐으로 조선인 1만여 명의 억울한 죽음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희생된 조선인 이름이 모두 새겨지길 기원했다.

둘째 날 도카시킴으로 향했다. 미군이 처음 오키나와에 상륙한 곳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집단자결 현장으로 일본군은 ‘포로가 되어 치욕을 당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국민의 본분’이라며 주민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주고 자살을 유도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중에는 불량 수류탄도 있고 수류탄을 잘 다루기가 힘들어 미쳐 죽지 못한 사람들은 농기구나 면도칼을 사용해 가족과 친척을 죽여야 했다니 이것은 자결이 아닌 학살일 뿐이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시라타마탑을 방문하고 아리랑 위령기념비로 향했다. 도카시킴 위안소에도 조선여성 7명이 잡혀왔다. 그 중 한 분이 책 <빨간기와집>으로 알려진 배봉기 할머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키나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제일교포와 도카시킴 주민 등이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웠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전쟁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셋째 날 오키나와 옛 국가인 류큐왕국의 슈리성을 방문했다.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었지만 1945년 오키나와전투에서 흔적 없이 타버렸다. 18세기 슈리조를 모델로 복원한 현재 슈리성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 앞에서 묵념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오키나와 수비군이었던 제32군 사령부가 마지막까지 자리하다 최후를 맞은 동굴진지가 슈리성에 남아 있다.

넷째 날 후텐마 미군기지 전망대를 찾았다. 후텐마 미군기지는 기노완시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넓다. 주거지역이 밀집된 기노완시 중심부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소음, 공해 등 각종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영토의 0.5%에 불과한 오키나와에는 일본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1995년 미군의 오키나와 소녀 강간사건, 2004년 미군헬기 오키나와 국제대학 추락사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전쟁수행의 전초기지가 될 곳은 오키나와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04년부터 미군기지 건설이 예정된 해변에 천막을 치고 13년째 반대농성을 벌이고 있다. 태평양전쟁은 끝났지만 오키나와전쟁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되며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평화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미국과 북한의 정전협정이 65년째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YWCA가 여성평화운동을 더 활발히 펼쳐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YWCA 장터

1950년대 시작된 YWCA 장터는 역사가 깊다. 회원YWCA는 해마다 모금과 나눔을 위한 장터(큰장날, 바자회, 베품시장)를 지역마다 열고 있다. 기업, 기관, 단체,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YWCA 장터는 의류, DIY(직접 제작) 상품, 업사이클링, EM제품, 식품, 잡화 등 다양하게 판매한다. YWCA 장터는 단순한 기금마련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소비자교육, 환경교육, 캠페인 등이 함께 하는 배움과 실천의 장이다.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사업, 후원기금 등 대부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고 있다.



대구YWCA 10.21 대구 어린이회관



고양YWCA 10.20 강선공원



광주YWCA 10.24~25 YWCA강당



김해YWCA 10.24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YWCA 10.25 YWCA 1층



동해YWCA 5.25 코스모스호텔



목포YWCA 9.14~15 YWCA 앞



서울YWCA 10.19 연합회 주차장



수원YWCA 9.20 YWCA 앞



순천YWCA 9.19~20 YWCA 1층



안양YWCA 11.1~2 동안구평생교육센터



의정부YWCA 10.27 YWCA 앞



진해YWCA 진해침례교회



포항YWCA 5.17~21 포항롯데백화점

애들이 밥먹자

YWCA는 2006년부터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침밥 먹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가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개하고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주먹밥, 떡, 음료수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논산YWCA 10.24 논산중학교



양산YWCA 10.25 보광중·고등학교



김해YWCA 9.19 장유중학교



안양YWCA 10.11 양명여자고등학교



속초YWCA 10.18 설악고등학교



포항YWCA 10.19 유성여자고등학교



마산YWCA 5.19 마산제일여자중학교



천안YWCA 10.31 천성중학교

매달리고 애써야 젊은 지도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 환경, 국제전문가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은경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을 만났다. 11월 1일(수)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한영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담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글·사진 신미희 문윤희 홍보출판팀



박은경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 약력

- 1994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1998~1999 한국YWCA연합회 사회문제위원회 위원장
- 2003 세계YWCA 부회장
- 2006 한국YWCA연합회 회장
- 2009 한국물포럼 총재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 2011 대한민국 수자원 대외직명대사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
- 현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가위원장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인류학 공부하며 환경에 관심 갖다

YWCA와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경기여고 1학년 때 Y-틴에 놀러가서 YWCA를 보니 너무 새로웠어요. 친구들과 Y-틴 동아리 '클로버클럽'으로 활동했어요. 토요일마다 서울YWCA 묘우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파란 스카프를 매고 명동 일대에서 청소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해군 위문공연도 가고 시내에서 포크댄스도 선보였죠. 과외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 YWCA를 통해 학교 밖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매일 열심히 살았어요. 항상 학생들에게 '꿈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하루를 찾아라'고 말해요. 시간이 흐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인류학과 동남아시아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어요. 인류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사람은 환경 속에 살며 함께 변화했잖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책과 자료를 보며 공부했어요.

YWCA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은?

1999년부터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YWCA 총회에서 세계YWCA 부회장에 뽑히고 2007년까지 8년간 활동했어요. 의사결정 과정과 의례 등을 많이 배웠죠. 책 <물

의 세계>를 쓴 것도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상 위 이름표를 세우면 발언권을 얻는지도 몰랐죠. 국제회의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북경 회의에서 '저요, 저요!' 손들며 외쳤던 기억이 나요.(웃음) 아참, 10월 24일 부산YWCA 이사와 위원들이 통영RCE 세자트라숲에 왔는데 재미났어요. YWCA에서 강의한 게 9년만이더라고요.

한국물포럼, 세계물포럼, 세계물위원회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은 왜 중요한가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몸의 70~80%가 물이죠. 식용 가능한 담수는 전체 물의 2.5%에 불과해요. 물교육재단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는 전 세계 물의 양을 5L 비커라고 한다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티스푼에 불과하다고 비유했죠. 세계 5명 중 1명은 마실 물이 없고, 2.5명 중 1명은 손 씻을 물이 없어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2010년 유엔은 '물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선언했고, 물은 국경을 넘어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충돌한 3차 중동전쟁의 시작은 물이었어요. 홍수, 가뭄, 산사태도 물 때문에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라도 인간이 노력해서 나아질 수 있다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보람된 국제활동을 꼽는다면?

물포럼 활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죠. 2009년 한국물포럼 총재로 선출돼 열심히 했죠. 외교부 수자원 대외직명 대사로 임명됐고, 세계물위원회 첫 여성 집행이사가 됐어요. 여성 최초였죠.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유치위원장으로 3년 여간 1년에 15번 이상 외국에 다니며 세계물포럼 유치도 성공했고요. 유엔에서는 유엔대학과 유네스코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별 이행을 담당하는 RCE(Regional Center for Expertise)를 세계 8번째이자 국내 첫 번째로 2005년



박은경 증경회장(사진 왼쪽)이 한영수 부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통영에 세웠죠. 2015년엔 이순신 장군이 승전한 학일진 바다를 낀 7만명에 ESD 교육터, 세자트라숲을 환경부 도움으로 마련했어요. 유엔대학 고등교육원 이사로 활동할 때 한국 후보지 추천을 부탁받았는데 우연히 방문한 통영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통영시장에게 제안했더니 석 달쯤 지나 회신이 왔어요. 연세대에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세워 1년을 준비한 후 유엔대학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지요.

100년을 바라보는 YWCA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계YWCA 부회장 때부터 젊은 리더십을 강조했어요. 유엔은 젊은 여성들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YWCA는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죠. 당시 세계YWCA 사무총장이 한국은 'Young'을 너무 안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젊은 세대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성세대와 함께 'Intergeneration'(세대간 연대)으로 나아가야 해요. 대학Y 정책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학Y를 재건하고 청년들을 키우려 했는데 잘 안됐죠. 매달리고 애써야 젊은 지도력을 기를 수 있어요. YWCA는 95년 역사와 강한 조직력을 가진 귀한 단체예요. 핵발전을 재고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강사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의 효과는 정말 크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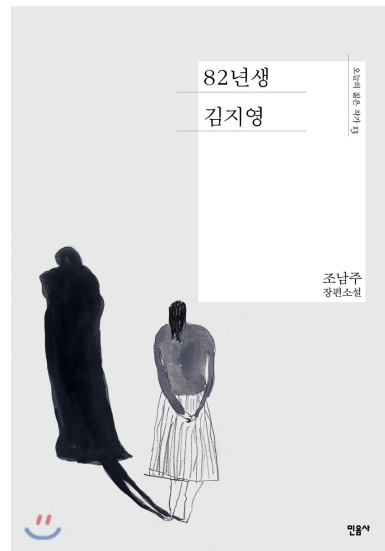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 교회청년 김지영

이한빛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과정

나보고 '맘충'이라

“할머니는 막내인 남동생을 유독 아꼈다. 초등학교가 되자 당연히 남자는 1번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급식도 남자부터 먹었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괴롭힘에 고통 받았고,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남자의 스토킹으로 남자 공포증을 겪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여성에게 가혹한 취업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면접 질문을 받고, 광고홍보대행사에 입사했다. 간신히 들어간 남성 위주 회사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았지만, 아이를 가진 후 퇴사했다. 출산하고 하루 종일 가사와 육아에 동등거리며 힘들게 아이를 키우지만 '맘충' 소리를 듣는다. 또 다시 진로를 고민하지만 선택의 길이 별로 없다. 결국 주변 여성들에게 빙의하는 증상을 겪는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 민음사 / 13,000원

올해 나이 36살.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2녀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해 주부이자 워킹맘, 육아맘으로 살고 있는 김지영씨. 38만부가 팔려 올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다. 극히 평범한 이야기인 듯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삶의 현실을 소설 형식을 빌려 낱말이 증언한 일종의 고발장이다. 아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이 고발은 어떤 이들에게는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준다.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여성에 대한 소외와 억압이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다시 가정을 거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 책은 한국 여성들의 '자서전'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들이 SNS 등에서 자신이 바로 그 '김지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90년생인 나에게도 그의 삶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2017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김지영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제2의 성'으로 타자화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의 '여성'으로 여겨진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공공연히 김지영의 남동생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기며 더 잘 대접할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취업되지 않은 김지영씨에게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라고 말한다. 여성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주변 태도는 김지영씨 학창 시절에도 계속된다.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여학생 특성'에 맞게 구두만 신을 것을 지도했고, 대학 동아리 남자선배들은 여학우들이 동아리 '꽃'으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랐다.

교회 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 기도문을 낭독하러 갔다가 치마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교회 수련회에서는 남자 형제들의 '눈 보호'와 '성적 관심 방지'를 위해 여성들에게 단정한 옷, 몸을 많이 가리는 옷을 강요하기도 한다. 여러 개신교 교단과 가톨릭은 '여자여 잠잠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이유로 여성의 목사 안수, 사제 서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성 가족에 편입되기를 요구받는 동시에 여성으로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요구받는다. 아이를 낳으면 '모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희생이 요구된다. 타자화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문제 인물로 낙인찍힌다. 이런 분위기는 많은 여성들이 주체성을 포기하고 타자화되는 삶을 선택하게 한다.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가 된 김지영씨 희생도 이렇게 이뤄졌다.

교회에서 여성의 타자화와 희생은 더욱 강화된다. '가장은 남성'이라는 견고한 가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관계 혹은 종속관계로 변형시킨다. 여성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요구한다. 가정의 평안과 양육이 여성 신앙의 몫이자 여성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교회 청년들의 결혼식에서 아내는 가장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은 가족의 구성원이 된 아내를 사랑하기를 요청받는다. 이렇다 보니 교회에서 여성은 '돕는 자'의 역할, 남



페미니즘을 주제로 5월 15일 열린 청년사역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어람ARMC>

성은 '이끄는 자'의 역할로 고착화돼 있다.

여성들은 이런 사회와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피해를 당하면 더 어려워진다. 김지영씨는 불합리한 차별과 고통의 끝에서조차 부당함을 호소하지 못한다. 엄마, 동아리 선배, 남편의 전 여자친구 등 다양한 주변 여성으로 빙의해 목소리를 낼 뿐이다.

그러나 김지영씨 삶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주변 여성들, 억압받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지영씨를 대신해 여성의 고통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요청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예수님은 '누가 제 이웃입니까?'를 묻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며 인생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얘기한다. 그들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은 오늘날 타자화되고 소외 받는 여성, 소수자들과 연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은 김지영씨 엄마가 딸에게 바랐던 것처럼, 여성들이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랐을 것이다. 여성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이웃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언젠가는 <82년생 김지영>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이야기가 되기를,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의미 없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WCA

11월 월례아침기도회



11월 1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월례 아침기도회가 열렸다. 김경은 장신대 교수가 '영적 분별'을 주제로 설교했다. 영적 분별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임을 제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장학위원회와 모금위원회가 특송을 맡았다.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운영하는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2일(목)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이 대상,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가 젊은지도자상을 받았다. 박에스터 YWCA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지위향상에 헌신해온 여성들을 선정해 34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했다.

북부지역 Y청년 열린아카데미

대학·청년Y 북부지역 Y청년 열린



아카데미가 10월 28일(토) 서울YWCA에서 열렸다. 이혜린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무가 들려주는 YWCA 이야기와 조은영 연합회 실행위원의 인간관계 특강으로 진행됐다.

Y-틴 전국간사 워크숍



2017년 하반기 Y-틴 전국간사워크숍이 11월 8일(수)부터 9일(목)까지 1박2일간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틴 담당 실무활동가 20명이 모여 올해 활동을 평가하고 2018-2019년 청소년정책 과제에 따른 활동을 논의하고 제안했다.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학교센터장, 이명화 서울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특강을 했다.

청년기자단 11월 정기모임



청년기자단 3기 제5차 정기모임이

11월 18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의 포토저널리즘 강의와 이승경 한국드론협회 교육원장의 드론저널리즘 특강을 듣고 소형 드론을 직접 작동하는 실습도 진행했다.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이 11월 18일(금)부터 19(토)까지 1박2일간 서울YWCA와 서울엔호텔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은 창업, 디자인, 요리, 인문학, ICT(정보통신기술), 문화여행 6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체험활동, 뮤지컬 관람 등을 했다. 논산, 속초, 안산, 인천, 의정부, 진주, 충주, 파주, 하남 등 9개 회원YWCA 다래교실 학생들과 대학·청년Y, 청년기자단, 자원봉사자 등 145명이 참석했다.

생활방사능 계측교육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계측교육이 10월 30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4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시민 등 55명이 참여했다. 김혜정 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생활 방사능 실태와 영향, 방사선 기본이론을 강의했고, 정규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을 교육했다.

YWCA-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기도주간 연합예배가 '일어나 외쳐라, 소리 없는 자의 소리가 되라'를 주제로 11월 13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명실 대구영남신학대학교 교수가 '길 닦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의 이사·위원, 활동가 100여명이 3.1운동 정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마쳤다.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 발족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한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11월 13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기독교가 3.1운동 100년을 다시 기억하는 일은 종교개혁과 3.1운동의 사상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3.1운동이 표방한 자주와 독립, 자유와 평화, 인권과 대동사회에 대한 비전을 시민사회에 다시 세울 것을 밝혔다. 심포지엄 개최, 기독교 선언 발표와 함께 2019년 남북연합 종교인대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YWCA 여성폭력 시설장 워크숍



YWCA 제3차 여성폭력시설장 워크숍이 11월 1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시설장 23명이 참석해 하에나 DSO 대표의 'DSO(디지털성범죄아웃)활동과 디지털성범죄 현황'에 대한 강의와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의 '디지털성폭력 처벌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수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협의회와 경기지역센터가 주관한 2017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

수가 11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2박3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렸다. 118명이 참석해 서재경 한민교회 목사의 '성서속의 여성과 공동체', 최대광 정동교회 목사의 '영화를 통해 본 YWCA 활동가의 역할', 최재규 공공협력원 국장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전망' 특강을 들었다.

연변민들레교류협회 지도자교육 한국연수

한국YWCA연합회가 후원하는 연변민들레교류협회 소속 지도자들이 10월 23(월)부터 29(일)까지 교육연수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사 5명은 공동체 활동과 여성의 사회적 책임, 여성단체 지도자의 역할 강의를 듣고 안양YWCA를 찾아 애니어그램 교육을 받았다. '2017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에 참석해 제주도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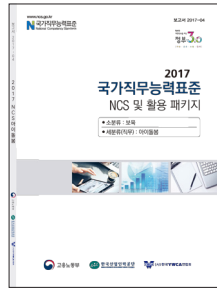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2017 여성평화걷기 사진전이 11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명동성당 1898갤러리에서 열렸다. YWCA를 비롯한 30개 여성·평화단체로 구성된 2017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가 5월 27일(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주최한 여성평화걷기 주요 사진이 전시됐다.

아이돌봄분야 NCS보고서 발간



올해 아이돌봄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연합회가 표준매뉴얼과 활용패키지 최종보고서를 10월 31일 펴냈다. YWCA는 2015년 가사지원분야 NCS 표준매뉴얼을, 2016년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과 공간정리수납 능력단위를 추가 개발했다.

이명혜 회장 국민포장 수상



이명혜 회장이 통일부 민간통일운동 유공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 회장은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포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수상은 YWCA가 북한 어린이돕기 등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포항YWCA 지진성금 전달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YWCA에 지원성금을 전달했다.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은 11월 23일(목) 포항YWCA를 방문해 지역 회원들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가 이뤄지길 기도했다.

바로잡습니다

월간 2017년 10월호 <원로에게 듣는다> 28쪽 본문의 첫 번째 문장 '김영희 선생님을 '김영의 선생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고양YWCA는 창립 28주년을 맞아 10월 25일(수) 에듀팜 댄싱플라워 교육농장에서 기념예배를 열었다. 평화통일시민단체 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 최준수 목사가 지역 여성운동의 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주제로 설교했다. 영화 '어폴로지' 공동체 상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연대로 해결할 과제를 함께 고민했다.

광명YWCA

나혜수 간사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 손으로' 캠페인



광명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명절 시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토)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 손으로'를 슬로건으로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청소년 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광명시, 광명경찰서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철산역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배우자폭력, 자녀폭력, 이웃폭력 NO"를 외쳤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주곡중학교 '찾아가는 씽크머니'



10월 19일(목), 20일(금) 남양주 주곡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씽크머니'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립밤, 시계, 이니셜이 들어간 팔찌 등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가가 되어보고, 수익금 기부 등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수원 팔색길 종주대회



수원YWCA와 수원시는 10월 21일(토) 지계길 5km를 걷는 '길 위의 옛이야기와 함께하는 제3회 수원 팔색길 종주대회'를 열었다. 문화공연, 지계체험, 재활용 가죽팔찌·손 세정제·책갈피 만들기 부스도 광고공원에서 운영되었다. 수원 팔색길은 지계길, 모수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화성성곽길로 이뤄졌으며 2015년부터 매해 종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론지 『여·세』 5호 발간

한국YWCA연합회는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을 주제로 정론지 『여·세』 5호를 펴냈다. 상반기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통해 나누었던 '교회는 왜 여성주의가 필요한가',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성차별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신청은 전화(031-313-9315) 또는 이메일(ywcapr@hanmail.net)로 할 수 있다.

한국YWCA연합회 / 1만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10. 1~10.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고예린,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경,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호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솔, 백정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민,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란, 이주영, 이찬형, 이천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화,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정태걸,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한희경, 홍기자,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2,008,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구 성광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260,000
	합계	2,268,000

성남YWCA

김경진 간사

환경견학 '깨끗한 물 지키미'



성남YWCA Y-틴과 환경동아리 청소년 18명은 10월 28일(토) 환경견학 활동으로 경안천 생태습지와 팔당호 물환경전시관을 방문했다. QR코드를 활용한 미션과 보물찾기,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경안천 생태습지의 수질 정화 작용을 이해하고, 습지 생물을 관찰했다. 물환경전시관에서 식수원인 팔당호의 흐름과 현황,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배우며 물 절약을 다짐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4050 여성취업박람회



안산YWCA 부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20일(금)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앞마당에서 4050세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박람회를 열었다.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300여명의 여성이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241명이 현장면접에 응했다. 노무와 창업상담,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지원 컨설팅을 비롯해 수납전문가, 드론지도사, 반려동물관리사 직종설명회 등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폭력예방 공모전 시상식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제2회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표어·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30일(월) 안양YWCA 회관에서 열렸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주제로 초등부 191편, 중·고등부 146편, 성인부 62편 등 모두 399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2차 심사를 거쳐 19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의정부YWCA

김지혜 팀장

청소년 바른소비 '굿즈 캠페인'



의정부YWCA는 10월 27일(금) 연예인을 주제로 만든 상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비와 판매처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바른소비 캠페인을 벌였다. 11월에는 10개 인기상품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는 시민모니터링, 12월에는 착한 굿즈 독려 등 '착한 굿즈 소비자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YWCA

오수진 간사

찾아가는 나눔장터

인천YWCA는 10월 23일(월) 자원순환 녹색장터인 '찾아가는 나눔장터'를 신광초등학교와 함께 열었다. 학생



들은 자신이 기부한 중고의류 등을 판매했고 에코백과 도자기컵, 쿠키 만들기를 체험하며 자원순환과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2005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나눔장터' 올해 행사에는 신광초등학교 전교생 700여명이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다.

동부

김해YWCA

권중숙 간사

성인 동화구연대회



10월 26일(목) 김해YWCA 강당에서 제18회 성인 동화구연대회가 열렸다. 동화를 통해 바른 언어를 공유하고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부와 50세 이상 실버부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3~4분간 동화를 구연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청소년바른지킴이 '청·바·지'

대구YWCA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대구를 '가보고 싶고 살고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부하며 토론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청·바·지(청소년바른지킴이) 프



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바·지 대원 30명은 9월 2일(토)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4일(토) 대구 근대골목 투어, 11월 4일(토) 대구 국악밴드 '나룻' 공연감상을 진행했다. 청·바·지는 12월까지 이어진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습지의 숨과 심' 평가회



10월 14일(토) 마산YWCA 강당에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습지의 숨과 심'에 참가한 여덟 가족과 평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경상남도 습지탐방 활동 영상을 보고 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사후평가로 환경보전 마음을 다졌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청소년 거리정화 활동 '게릴라 가드닝'



회원YWCA 소식 11월

10월 11일(수)부터 8회에 걸쳐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거리정화 활동인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했다. 사천YWCA Y-틴과 삼천포여고 학생 20여명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화분에 꽃을 심어 화단을 만들었다. 사천YWCA는 청소년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녹색생활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요리경연대회 '아빠는 셰프'



10월 21일(토)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를 삼양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다. 12명의 아빠들은 가족의 뜨거운 응원에 두 가지씩 요리를 만들어 경연을 펼쳤고 유쾌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산YWCA는 매해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방방곳곳 대중교통 캠페인



울산YWCA는 10월 20일(금) 가을여행주간과 '버스·차전거 이용의 날'(매월 22일)을 맞아 '울산 방방곳곳 대중교통 캠페인'을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펼쳤다. 환경보호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주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홍보 리플릿을 나눠줬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의식을 조사하는 '시민 리퀘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구급함을 선물했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다래교실 '진로비전 에코캠프'



진주YWCA는 10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통영 동피랑과 연대도에서 다래교실 '진로비전 에코캠프'를 열었다. 다래교실 청소년(멘토)과 다문화가정 아이들(멘티) 30여명이 함께한 '진로비전 에코캠프'는 청소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와 목공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인턴십 활동으로 진행됐다.

진해YWCA

김미영 팀장

에코우먼의 에코백 만들기



진해YWCA는 10월 30일(월)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봉지를 대신하기 위해 자연친화 면재료를 에코백을 만드는 이번 체험은 생활속 환경보호운동의 유익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창원YWCA

정혜경 간사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6년차를 맞아 창원시 성주



류화 정책 모니터링 분석결과 보고회가 10월 23일(월) 창원문화원에서 열렸다. 창원YWCA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성평등 모니터링단 '젠더N'은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창원시 성주류화 정책이행을 점검해왔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포항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5회 포항YWCA합창단 정기연주회가 400여명의 시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토)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35명의 단원과 가족이 함께 '기쁨의 찬양', '행복한 노래', '은혜의 찬양'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소프라노 이민정, 포항CBS 소년소녀합창단, 한동대 피치파이프가 특별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다문화여성들과 함께한 '가을 나들이'

강릉YWCA는 10월 30일(월)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노추산 모정탑으로 가을 나들이를 갔다. 강릉YWCA 이사와 위원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 다문화여성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별 미션 활동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동해YWCA

진민지 간사

교육기부 인증기관 인증서 수여



동해YWCA 부설 동해진로체험지원센터 '꿈꾸장'(꿈꾸는 청소년들의 징검다리)과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은 10월 12일(목)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동해소방서 등 5개 기관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교육기부 인증제는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양질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극단 '혹' 정기공연



서울YWCA 극단 '축'은 10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서울YWCA 회관 1층 마루에서 제5회 정기공연 <경로당 폰팅사건>을 선보였다. 연극을 통한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 '축'은 이번 작품을 통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해학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야학 '상록수학교' 소풍



속초YWCA는 10월 15일(일) 속초 청대산 일원에서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야학 '상록수학교' 소풍을 진행했다. 상록수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1997년 한글교실로 시작된 무료교육이다. 올해는 5월 10일(수) 개강해 평일 저녁 2시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한문 등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창립 50주년 음악회



원주YWCA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음악에 꿈을 담다'를 주제로 10월 30일(월) 원주백운아트홀에서 열렸다. 라운옥 강원C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원주YWCA어린이합창단&오케스트라, 조이플라이어, 장애인부모연대 앙상블이 참여했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청소년 청렴창작극 발표회



미래의 청소년이 청렴 가치를 새길 수 있는 청렴의 6가지 덕목을 표현한 '청렴 창작극 발표회'가 10월 14일(토) 광주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YWCA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10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청렴창작극 동아리'를 운영해 청렴교육, 대본작성, 역할극 연습을 진행해왔다. 대상은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링컨의 정직'팀이 받았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홍부제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남원YWCA는 10월 28(토)부터 29(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남원시 문화축제 '제25회 홍부제'에 참여해 청소년 활동과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장터를 진행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농어촌 노인 소비자교육

10월 19일(목) 목포YWCA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3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인 소비자교육이 열렸다. 정보에 취약한 노인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권



리 이해, 건강기능식품과 모바일판매 피해 사례, 금융피해 동영상 시청 등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마사회가 후원한 이번 교육에서는 1:1 소비자고충 상담도 벌여 어르신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도왔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식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식이 수강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토) 서귀포YWCA회관에서 열렸다. 중장년층들의 은퇴 후 인생2모작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5월 13일(토) 시작해 매주 토요일 4시간씩 6개월동안 25차례 진행되었다. 제2의 인생설계 과정 및 부동산 채테크, 법률, 세무 등 전문역량 과정으로 이뤄졌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순천만국가정원 가꾸기



10월 23일(월) 순천만 국가정원 저류지 주차장에서 순천만국가정원 환경서포터즈 활동을 펼쳤다. 흐린 날씨

에도 순천YWCA 회원 28명은 잡초제거와 쓰레기 줍기 등 정원가꾸기에 참여했다. 순천YWCA를 비롯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시민의 손으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서포터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키다리학교 청소년포럼대회



익산YWCA는 11월 4일(토) 키다리학교 청소년포럼대회를 익산원협에서 열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의와 토론을 통해 의사표현과 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대회에는 부천중학교 등 3개 중학교와 익산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 청소년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소년노동권, 임용절벽, 소년범죄, 익산시민으로서 한마디'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책으로 엮보는 페미니즘



전주YWCA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책으로 엮보는 페미니즘'과 히포시(HeForShe) 양성평등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성인과 아동·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전주YWCA 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성차별 관행 해소와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1일(화)에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운 페미니즘과 히포시' 공개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꿈꿈 생활 모니터단 구성

논산YWCA는 여성의 정책제안과 사회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여성 20명이 참여하는 '꿈꿈 생활 모니터단'을 만들었다. 10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성인지 교육을 비롯해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 성인지 정책과 지역운동의 이해, 여성참여 마을활동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성인지 인식확산 모니터링도 시작됐으며, 논산시 정책에 반영토록 의제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후원의 밤



대전YWCA는 10월 25일(목)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회원과 후원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 조원희 대전시의회 부의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이 축사를 했다. 대전지역 청소년 댄스동아리 '토이맨' 공연에 이어 뮤지컬 명성 황후 주연 신영숙 배우가 유명 뮤지컬 노래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어린이 당류저감화 교육

10월 19일(목) 식품안전정보원이 후원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소비자교육 '나트륨·당류 줄이GO, 건강 올리GO'를 세종YWCA 어린이집에서 열었다. 세종YWCA 어린이집 6~7세 아동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류저감화를 위한 음식섭취 강의와 천연 바나나우유 만들기 실습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이 식품



의 나트륨, 당류 성분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신입회원 환영회



10월 23일(월) 회원증모운동 보고와 더불어 신입회원들과 함께하는 '회원 환영회'로 EM발효액 만들기를 진행했다. 천안YWCA는 매달 회원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기독교성 인문학 강좌와 EM발효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여성주의 문화난장 '반반한 상상'



청주YWCA는 여성주의 문화난장 '반반한 상상'을 10월 28일(토) 상당공원에서 열었다. 청주청년Y '일참청'(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문화난장은 히포시(Heforshe) 캠페인과 미러링 체험, 페미니즘 퀴즈, 청년다방, 문화쉼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지역청년들의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이젠 허리펴고 살겠네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 더욱 든든해진 건강보험 혜택 |

- 1 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 보장 확대**
척추디스크 등 진단을 위한 MRI 각종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2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기본 특진비 성격의 선택의사진료비는 완전히 폐지 1~3인실 병실비 건강보험 적용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 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 (22년까지 10만 병상 수준까지 확대)
- 4 어르신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 치매 진단을 위한 각종 인지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 5 어린이 진료비 부담 완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6 본인 부담 상한액 경감**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감액
- 7 병원비 부담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로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비 지원

✓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